

제목소리 못내는 광주 경제단체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현안 산적

광주상의·중소기업청 현황 파악·의견 수렴 全無

지역경제단체가 주요 경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 대표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 등은 경제계 최대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에 대한 기업의견과 지원사항을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건의해 예상되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지만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6일 고용노동부 광주지청 등에 따르면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받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광주·전남에만 90여곳에 이르지만 이들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실태 파

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상공회의소의 경우 회원으로 속한 2550여개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건의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광주고용지청 내 관할 지역에서만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이 71곳에 이르지만 기업 현황은 커녕, 이들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비용 부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조사하거나 파악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면 대대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 시행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실태 조사는 커녕, 간담회나 설문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말이 무색한 형편이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민감한 이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도 간담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인 친목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경제인총연합회도 220여개에 달하는 회원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통계 조사 등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0~299인 사업장(2800곳)과 5~49인 사업장(4만3416곳)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지청 설명이다.

광주상의 뿐 아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야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현황 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3일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현황·명단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발굴해 매주 수요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광주 25개·전남 8개로, 고용노동부 광주(71)·여수고용지청(24)이 파악하고 있는 기업 현황과도 맞지 않아 자칫 혼선이나 부실 조사도 우려되고 있다. 이때문에 중앙부처 요구대로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면담 일정을 잡아 대응책을 마련해 기한 내 제대로 보고할 지도 미지수다.

광주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 건의해 도움을 줘야 하는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조차 현안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dok2000@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7.49 (+2.42) ↑ 금리 (국고채 3년) 2.17% (+0.01)

↑ 코스닥 896.89 (+5.02) ↑ 환율 (USD) 1074.00원 (+4.50)

김치부터 와인까지 365일 싱싱보관

삼성 '김치플러스 사계절' 출시...17가지 맞춤 기능 갖춰



삼성전자가 보관 조건이 제각각인 다양한 식품을 1년 내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플러스 사계절'을 16일 출시했다.

'김치플러스 사계절'은 맞춤형 보관이 가능한 다용도 프리미엄 김치냉장고로, 전용 수납 액세서리를 함께 제공해 사용 편의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김치 외에도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려는 소비자 수요를 감안, 열대과일부터 고구마·감자·무·당근 등 뿌리채소, 와인까지 맞춤형으로 보관할 수 있는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김치플러스'를 선보인 바 있다.

'김치플러스 사계절'은 식품 전문 보

관에 특화해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0.3도 이내 오차 범위를 유지하는 '미세 정온기술' ▲김치, 바나나, 감자 등 종류별로 조정가능한 17가지 맞춤 보관 기능 ▲하칸을 용도에 따라 냉장·냉동·상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와이드 상칸 등 '김치플러스'의 핵심 기능들은 통일하게 적용됐다.

584ℓ, 486ℓ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249만9000원~329만9000원이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상칸에 보관할 수 있는 글라스락 9종 세트와 메탈 김치통을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지훈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건전 회식·선물 수수 금지 등 '5대 클린문화' 선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6일 오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임원, 부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2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나선희 강사를 초빙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특강 교육을 진행하고, 'CLEAN5 광은문화' 선포식을 실시하며 정직하고 신뢰 높은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CLEAN5 광은문화' 선포식은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임직원간 선물 수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불건전한 사행성 행위 금지, 직원 간 서로 정전하자는 내용으

로 광주은행 임직원의 행동규범을 명확히 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2018년 1분기 경영실적을 보고하고, 핵심예금 유치와 신용카드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점의 우수사례 발표 시간을 가지며 지난 1분기를 돌아보고, 이어서 각 부서별 2분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송중욱 은행장은 "고객중심 행복한 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 제일주의와 사회공헌활동 강화, 그리고 디지털 영업 환경에 선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와 지역을 잘 아는 우리 모두의 은행을 만들자"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더 조이는 가계대출

하반기부터 2금융권 대출규제...더 간소한 새 심사 기준 마련

정부가 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살피고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공급을 줄여 커버드본드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출자 연령·기간 등 여신심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또 오르는 대출 금리

3월 코픽스 전월비 0.03P 올라 1.78%...7개월 연속 상승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액기준으로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연합회는 3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보다 0.03포인트(p)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가 이어졌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0.05%p 상승한 1.82%로 집계됐다. 은행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올라 덩달아 신규취

급액 기준 코픽스도 상승했다.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단순평균금리가 2월 1.978%에서 3월 2.041%로 올랐다.

3월 기준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인상된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 기준은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땐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 순해진 '참이슬'

도수 0.6 낮춰 17.2도...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출고

하이트진로는 16일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도수를 0.6도 낮춘 '더 깨끗해진 참이슬 후레쉬' 출고 기념식을 가졌다.

새로워진 참이슬은 이번 주부터 전국 유통업소,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다. 이날 출고된 참이슬은 2년간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도수를 17.2도로 내렸다.

패키지에 이슬을 형상화한 이형라벨을 적용해 젊고 세련된 감각을 강조했다. 모델로 아이유와 함께 최근 젊은 여성

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서준을 발탁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 외에 참이슬 오리지널(20.1도), 진로 골드(25도), 참나무통막은이슬, 일품진로 등 다양한 소주 라인업을 내세워 다양한 계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 불가능 합니다.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벗님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